

**KSPM-150**

**소아암 환자 부모의 항암 화학요법 및 부작용 관리에 관한 지식·태도·실천에 대한 연구**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parents on how to manage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

권은경<sup>1)</sup>, 김순덕<sup>2)</sup>, 이준영<sup>2)</sup>, 안효섭<sup>3)</sup>, 이제숙<sup>2)</sup>

(1)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목적:** 소아암은 1세이상의 소아 사망원인에서 사고사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암 그 자체가 요인이라기보다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아암 환자의 장기생존을 위해서는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에서 소아암 환자 부모의 항암화학요법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그에 대한 지식이 환아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태도와 실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태도가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임상에서 소아암 부모의 교육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소아암 환아 부모에 대한 교육적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환아부모 165명을 대상으로 환아가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중이거나 외래방문 중일 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pearson's correlation & partial correlation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PSS(version 10.0)를 사용하였다.

**결과:** 소아암 부모의 항암화학요법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의 평균점(12.98점)은 높았으나, 최소값(3점)과 최대값(15점)의 차이가 컸으며, 평균의 태도(4.15점)와 실천수준(4.24점)은 적극적이었다.

지식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 진단명, 내원목적, 학력, 월수입이었으며, 태도수준에는 지식수준, 내원목적, 출생순위로 나타났으며, 실천수준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태도수준과 부모연령이었다. 지식·태도·실천의 상관성 분석에서 지식과 태도, 태도와 실천 사이에선 상관성이 유의하였으나, 지식과 실천 사이의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소아암 환자 부모들은 의료진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이뤄져야하며, 환아를 직접 간호하는 부모의 실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부작용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총점 15점을 기준으로 평균이 12.98점이었으며, 최소값은 3점, 최대값은 15점이고,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환아 나이, 진단명, 내원목적,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 경제수준, 직업,

학력이었다.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한 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이 4.15점이었으며, 최소값은 2.93점, 최대값은 5.00점이었으며,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출생순위, 재발 여부, 내원목적,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였다.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보호자의 실천수준에 대한 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이 4.24점이었으며, 최소값은 2.93점, 최대값은 5.00점이었으며, 경제수준의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부모의 성별(P=0.07)이었다. Multiple regression 결과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 진단명, 내원목적, 학력, 경제수준이었으며, 태도수준에는 지식수준, 내원목적, 출생순위였고, 실천수준에는 태도수준과 부모연령이 유의한 변수였다.

Pearson's correlation에선 각각의 관계에서 상관성이 유의하였으나, Partial correlation에서는 지식과 실천사이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KSPM-157**

**5대암 조기검진 수검률 전국 조사**

**Nationwide survey on the participation rate in the screening for 5 major cancers**

김동현<sup>1)</sup>, 조희숙<sup>2)</sup>, 최용준<sup>1)</sup>, 이훈재<sup>3)</sup>, 주영수<sup>4)</sup>, 이태진<sup>1)</sup>, 조형원<sup>5)</sup>, 배상수<sup>1)</sup>

(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4)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 (5)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목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암검진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생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하는 표본집단을 구성해 암 검진 수검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조사대상은 남자 40세 이상, 여자 30세 이상으로 서울, 부산/대구, 기타 광역시, 기타 시도 동지역, 기타 시도 읍면지역의 5개 구역으로 층화한 후 성별, 연령별로 표본 규모 모집단에 비례하여 대상수를 할당하였다. 대상자는 무작위번호추출(Random digit dialing)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고, 이들에 대해 각종 인구학적 특징, 과거 일생 동안의 암 검사 유무, 지난 2년간(대장암은 5년간) 암종별 각종 검진 수검여부 등에 대해 전화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전화 조사 리스트 중 전화 연결 후, 조사에 성공한 응답율은 서울 37.3%에서 기타 군지역 63.9% 까지 분포하였다. 최종적으로 826명(남자 305명, 여자 521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일생동안 위암,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검진 수검률은 각각 43.9%, 25.4%, 54.5%, 그리고 73.8%로 조사되었다. 최근 2년(대장암은 5년)이내) 수검률은 각각 37.1%, 20.3%, 43.6%, 그리고 58.5% 였다. 연령별로 분석하면 위의 모든 암종에서 60대 이후에는 암 수검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암 검사에서 전액 본인 부담에 의한 암 검사 실시율이 70% 내외로 높았다.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등의 여성 암의 경우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수검률이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암 검진 수검이유 중 일부는 증상 때문인 것으